

무주산골영화제 '쌍파르' ... 여덟번째 긴 여정 시작

초여름 산골에서 낭만 만끽

'넥스트 액터' 고아성 셀프 트레이ILER 소개

관객과 함께 만든 단편 '순간' 첫 상영

개작작 '쇼쇼쇼! 또순이랑 우주랑' 최초 공개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개막식 라이브로 진행

초여름 속 영화로 스며드는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4일 저녁 8시, 여덟 번째 영화 소풍을 알리는 개막식을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개최했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객과 무주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영화제를 기다려온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및 올해 하반기 오프라인 극장 영화 상영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분산 개최 방식으로 이번 영화제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4일 개최하는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은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넥스트 액터' 배우 고아성, 심사위원, 개막작 공연 팀만 참여해 본 행사를 진행했으며, 개막식 현장에는 네이버TV,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수력원자력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했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은 4일 저녁 7시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의 사회로 시작해, 대한민국 소리를 알리고 있는 젊은 소리꾼 유대평양(with 한운원 밴드)의 아름다운 개막식 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선정된 배우 고아성을 비롯해 한국장편경쟁부문 심사를 맡아 줄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무대에 자리해, 뜻 깊은 소감과 함께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또한 이번 개막작으로 1963년작 박성호 감독의 '또순이(부제: 행복의 탄생)'을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김초희 감독이 연출, 재탄생된

'쇼쇼쇼! 또순이랑 우주랑'이 최초 공개됐다. 고전영화와 현대음악의 콜라보라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개막작 전통을 이어, 우주도깨비의 독창적인 연주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개막작 '쇼쇼쇼! 또순이랑 우주랑'에 대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주인공 '또순이'라는 캐릭터가 코로나19 시대에 지쳐있는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관객과 함께 완성한 첫 단편 다큐멘터리 '순간 2019'가 개막식에서 최초 공개되는 등 시대에 발맞춘 무주산골영화제의 새로운 여정을 알렸다.

4일 개막식을 통해 낭만적인 영화 소풍을 시작한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본격적으로 5일부터 관객들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장편경쟁부문의 총 10편을 세 개의 색선으로 나누어,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 자리해 의미 있는 토크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영화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넥스트 액터 Next ACTOR' 백은하 소장과 배우 고아성이 만나 도서 '넥스트 액터 고아성'을 비롯해 한국장편경쟁부문 심사를 맡아 줄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무대에 자리해, 뜻 깊은 소감과 함께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처럼 게스트들의 흥미로운 토크 이외에도 찰리 체플린의 '봉급날', '유한계급'과 버스터 키튼의 '항해자'가 각각 윤석철 트리오와 신나는섬의 연주가 함께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되어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될 예정이

어서 무주의 아름다운 밤을 그리워하는 관객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다.

한편 영화적인 즐거움에 더한, 두 번 다시 없을 역대급 공연 라인업으로 관객들에게 안방 콘서트를 선사한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노을이 저무는 무주의 하늘을 무대 삼아 싱어송라이터 풀킨의 로맨틱하면서도 감미로운 공연과 적재의 포근한 어쿠스틱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귀한 뮤지션 픽보이의 신나는 공연부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 소년의 에너지적인 공연, 마지막으로 치즈의 명랑한 어쿠스틱 팝 공연까지,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역대급 공연들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무주산골영화제를 기다려 온 관객들에게 낭만 가득한 시간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대통령, 키즈크리에이터 도티와 세이브더칠드런이 '어린이는 소중한이다'라는 주제의 따뜻한 토크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며, 배스탁 음악작가와 함께하는 특별 기획공연 프로그램 '뮤직 라이브 무주'의 첫 문을 스티라장과 프롬이 열어 그동안의 특별한 음악세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유기하 집행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시기에 영화제를 준비하며 올해의 프로그램을 관객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없게 되어 너무 아쉽다. 온/오프라인 분산개최라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방식으로 영화제를 기다려 온 관객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개막식 및 토크, 공연 등의 야외 프로그램을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최 후, 올해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든 상영작들을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무주 및 서울 등에서 영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장편영화 연출가를 꿈꾸신다면?

전주영상위, 영화학교 수강생 모집

월 100만원 교육지원금

장편영화 기획 개발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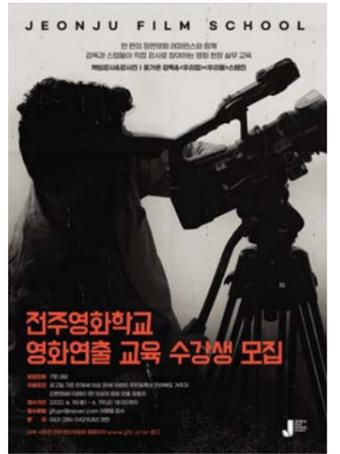
(사)전주영상위원회(이하 전주영상위)는 '2020 전주영화학교' 영화연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주영화학교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장편영화 연출을 희망하거나 전문영화인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지역의 영화인을 대상으로 영화연출 수업과 장편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7월부터 약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전주영화학교' 수강생 지원조건은 만 19세~39세 이하의 전라북도 거주자로서 단편영화 1편 이상의 영화연출 경험자여야 한다.

'전주영화학교'는 생생한 현장 교육을 목표로 독립과 상업, 예술영화의 경계에서 우수한 역량을 자랑하는 장편영화를 선정해 해당 영화의 감독을 중심으로 실제 스텝들이 각 파트별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우리들', '우리집'으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윤가은 감독과 두 편의 영화에 함께 참여한 제작/촬영/미술/편집 파트의 스텝들이 메인 강사로 함께한다.

윤가은 감독은 아이들의 심리와 유년시절을 섬세하게 포착해낸 성장영화를 통해 차세대 거장으로 꼽힌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더불어 아역배우를 스크린 위에 살아 숨 쉬게 하는 3대 마스터'라는 극찬과 함께 영국의 영화매체 사이트엔사운드(Sight&Sound)를 통해 선정된 '미래의 거장 20인'에 유일한 한국 감독으로 윤가은 감독을 선정했다.

특히 전주영화학교에서는 장편영화 아이



템을 개발하는 과정의 기획·개발 멘토링 수업과 연기/특수효과/영화음악 등의 전문가 특강 수업도 진행한다. 3개월의 교육 과정 동안 수강생들이 오프라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 수료 후 각 수강생들의 장편영화 기획개발 내용을 심사해 총 2인에 각 700만원의 기획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영화학교 수강생 모집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fc.or.kr)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주영상위 이메일(jjfcp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fc.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63-286-0421(내선번호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벽문화관, 무대공연 지원 선정단체와 간담회

전주한벽문화관은 지난 3일 '2020 지역협력 무대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단체와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영근 관장을 비롯해 전주시음악협회, 두맨스, 라스트포인, 이음음악협회, 극단 삼육옥, 소화무용 등 6개 선정단체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주음악협회는 오페라 아리아, 창작가곡 등을 준비한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 두맨스는 서편제를 모티브로 한 '창작춤소리길', 라스트포인은 비보이, 마임, 폰트 등 다양한 장르를 유니버스 형태로 구성한 'LA SHOW', 이음음악협회는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발레곡들을 설명과 함께 피아노로 연주(1 piano 4 hands)하는 '건반위의 비레'를 소개했다.

젊은예술가 분야로 선정된 극단 삼육옥은 함께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의 단절을 주제로 하는 '연극-베란다 이웃들'을, 소화무용은 소수의 인권,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현대사회에 물음을 던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몸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다수의 소수자들-성'을 준비하여 참석하면서도 목격한 작품을 알렸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의 중단으로 인해 모든 일정들이 하반기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정 단체들은 주중 공연 추진 및 야외공연무대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편 전주한벽문화관에서는 단체들과 일정 조율을 거친 후 '종합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계시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성영근 관장은 "전주문화재단과 전주한벽문화관은 앞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며 "공연자가 항상 최고의 기량을 펼쳐내는 공간을 지향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4일 2020년도 신규 역점사업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라벨 문화 증진·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올 신규 역점사업 발표

인증 컨설팅·직장교육·공동체 조성 등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기본과정 등 80시간 4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 이하 센터)는 4일 2020년도 신규 역점사업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올해 신규 선정된 두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추진하는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사업 등을 통해 가족친화문화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가족친화사회 및 가족 돌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0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

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성평등 관련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력향상과정 ▲위촉평가과정 등 총 80시간 4개 과정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성평등미디어, 젠더와 문화, 직업현장에서 젠더와 노동 등으로 최종 평가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확산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도내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조성에 전문 강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젠더문화 행사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

적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노사 소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부하직원이 상사의 멘토가 되는 '역멘토링'과, 매주 화요일 아침 간담식 제공과 함께 타부서 직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센터 출입 통로 단일화, 모든 강의실에 스프레이소독제 비치, 강의실 책상 간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윤애 센터장은 "올해 신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위라벨 문화를 증진시키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궁극적 목표인 성평등 가치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wv.re.kr)나 전략기획팀(063-254-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임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6일 개막

필봉농악 전통연희극 '춤추는 상쇠-필봉아리랑' 첫 공연

코로나19 생활 속 방역수칙 따라 사전 예매로 관람객 제한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춤추는 상쇠-필봉아리랑'이 6일 오후 8시에 전북 임실군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취락원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8월말까지 전통연희극이 펼쳐진다.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을 바탕으로 임실필봉농악 보존회(보존회장 양진성)가 만들어가는 전통문화콘텐츠다.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새마을 운동 등 급변하는 사회 발전 속에 사라져 가는 농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필봉 사람들의 모습

을 담았다.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합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불거리와 함께 부모와 자식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라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전 예매를 통해 관람객을 제한했다.

발매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공연을 진행한다. 한편 공연의 관람료는 1만원으로 전북투어패스카드를 소지한 관람객들은 별도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063-643-190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경 기자